『종교학연구』 제39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1, pp. 53-80.

고개 돌린 용

: 풍수의 '회룡고조(回龍顧祖)' 개념으로 본 『정감록』

노 현 수*

目 次

Ⅰ. 머리말
Ⅱ. 풍수지리와 회룡고조
Ⅲ. 회룡고조로 본 계룡산의 이해: 정감록의 인식 전환
  1. 조선전기의 계룡산 이해
  2. 『정감록』의 계룡산 인식의 전환
Ⅳ. '궁궁(弓弓)'의 재해석: 회룡고조로 본 이상향
  1. 궁궁의 모호성
  2. 회룡고조와 궁궁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땅은 그 자체로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에 대한 공간적, 장소적 이해가 결합되면서 문화화되기 마련이다. 그 과정이 늘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어서 이해의 상충과 담론의 역전이 거듭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곳이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계룡 지역이다. 사실, 정감록 문헌에서 새로운 도읍지의 터로 예언되는 계룡산은 과거부터 논쟁이 많은 땅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새 도읍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생

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한양과 더불어 계룡산 일대를 두고 고민했었다. 현재 그 땅에는 국방부 계룡대(鷄龍臺)가 들어서 있는데, 계룡대의 주소 신도안면(新都案面)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이 조선이 세울 새 도읍지의 후보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왜 이성계는 계룡산이 아닌 한양을 도읍지로 삼았으며, 조선 후기 정감록 전통에 의해 계룡산 일대가 다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답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1] 본 연구는 풍수지리학에 등장하는 개념인 '회룡고조(回龍顧祖)'라는 렌즈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회룡고조는 계룡산의 풍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이 개념을 해석하는 전통에 따라 계룡산의 이해도 달라졌다고 본다.

본 논문은 회룡고조를 둘러싼 풍수 일반의 논리와 정감록 문헌을 비교·분석하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과정과 특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풍수나 정감록의 서사를 일반적인 역사의 서술에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그것이 삶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model of) 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당대 민중들의 삶의 지향을 담은(model for)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대인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상을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와 정감록 문헌을 술수나 믿음의 대상이 아닌, 문화적 토대를 이해하는 실마리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특정 지역을 이해하는 논리들 사이의 괴리에 주목할 것이다. 계룡산의 회룡고조에 대한 이해방식은 조선 건국 당시와 조선 후기가 서로 달랐으며,

---

1) 풍수지리적으로 계룡산이 길지에 해당한다는 연구나 『정감록』에서 계룡산이 혁세적 민중의식의 이상향으로 설정되었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조선 전기와 후기에 계룡산에 대한 인식이 어떤 요인으로 달라졌으며, 그 과정에서 '회룡고조'라는 개념이 중요한 요소임을 포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김기모, 「계룡산 도읍지설과 천도논의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2003); 양은용, 「풍수지리설과 정감록」, 『종교문화연구』 19 (2012): 311-324; 윤병철, 「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28(1) (2005): 95-125; 이이화, 『민란의 시대: 조선의 마지막 100년』 (서울: 한겨레출판, 2017) 참조.

정감록 전통은 그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계룡산의 회룡고조에 대한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의 인식 변화를 주산과 조산의 역학관계에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7)와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 1938-2017)가 성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조에 대해 논의했던 연구들도 참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회룡고조 개념을 통해, 기존 학계에서 제공하지 못한, 공간적 이상향으로 언표되는 '궁궁(弓弓)' 혹은 '양궁(兩弓)'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궁궁은 정감록을 비롯한 동학, 신종교, 가사문학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고 분분하여 아직까지 정설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지리적 해석을 넘어, 공간에 대한 사유가 종교적 사유로 확정되어 나가는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정감록에 드러난 종교사상과 도참사상,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단서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1) 풍수지리학에서 다뤄지는 회룡고조의 개념을 분석한 다음, 2) 정감록 문헌에서 계룡산의 회룡고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3) '궁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열쇠를 던져보고자 한다.

Ⅱ. 풍수지리와 회룡고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풍수지리를 인문지리학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과학적 해석을 통해 그 합리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풍수지리는 사자(死者)나 자연과의 감응을 통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역술의 일종이

2) 박시익, 「풍수지리 이론의 과학적인 해석과 응용방법」, 『동아시아문화와예술』 2 (2005) 등.

었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앙적 관점이 다분한 개념이다.[3]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길흉화복의 실재성에 대해선 판단을 중지(epoché)하는 종교현상학적 방법론을 취하고자 한다.[4] 요컨대 당시의 풍수지리는 민중들이 자연과 공간을 인식하는 중요한 렌즈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인식과 해석이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현실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풍수지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창조는 '음양론과 오행론을 근간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전통적 지리과학으로 추길(追吉), 피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이라고 정의했다.[5] 풍수지리는 『청오경(靑烏經)』, 『금낭경(錦囊經)』과 같은 고서에 기반을 두고, 나름의 논리체계를 구축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오랜 기간 입지 선정과 공간 배치 이론으로 형성되어 왔다.

풍수지리는 개인적 수준에서 묫자리를 선택하는 음택풍수(陰宅風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찾는 양택풍수(陽宅風水)에 그치지 않고, 후삼국부터 국도(國都)의 선택과 국가경영에 중요하게 참고되어 왔다. 고려 건국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는 훈요 10조[6]를 분석해보면, 여러 조항에서 풍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5조에서는 '서경'이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니, 왕은 1년에 100일동안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라는 언급[7]이 등장할 정도이다. 조선의 경우,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풍수서(風水書)를 과학의 한 과목으로 채택하고 시험을 거쳐 전문적인 풍수가를 선발하기도 하였다.[8] 이처럼 풍수지리는 과거부터 도읍지 선정, 천도, 정치적 대소사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

풍수지리의 풍수(風水)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약어인데, '바람을 가두고 물

---

3)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 옮김 (서울: 민음사, 1990), 10.

4) 이에 대해선 게라르두스 반 델 레에우, 『종교현상학 입문』, 손봉호·길희성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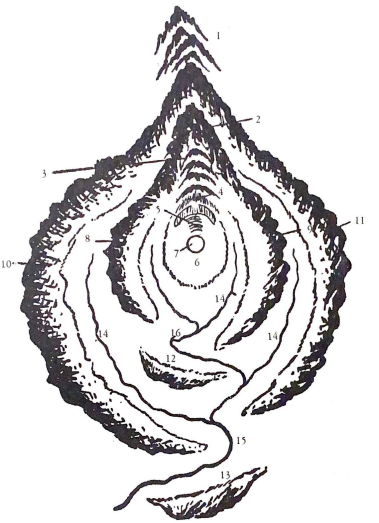
5)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32.

6) 『高麗史世家』, 태조 26년(계묘년).

7) 『高麗史世家』,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8) 『청오경·금낭경』, 김관석 옮김 (서울: 산업도서출판공사, 1994), 5.

을 모은다'라는 뜻이다.[9] 우리나라는 겨울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산이 뒤에 있어야 하고, 농경과 상업, 거주에 필수적인 물을 쉽게 공급하기 위한 강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 측면과 결합하면서 '배산임수(背山臨水)'는 풍수 명당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이 산의 명칭을 '사신사(四神砂)'로 표기하고, 산과 물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림 1: 풍수지리 도상>[10]

즉 명당이란 조종산(祖宗山)에서 시작된 주산(主山)의 산세가 뒤에서 받쳐주며, 명당 왼쪽에는 좌청룡(左靑龍)이, 우측에는 우백호(右白虎)가 감싸 안아주고 있으

9)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 옮김, 25.
10)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35.

며, 앞으로는 내수(內水)와 외수(外水)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그 뒤로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이 받쳐주는 곳이면 풍수지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명당이 된다. 본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볼 개념은 주산(主山)과 조종산(祖宗山), 조산(朝山)이다. <그림 1>의 1에 위치한 조종산에서 출발한 주산은 2에 위치한 산으로 6에 해당하는 명당의 위쪽에 만들어진다. 13에 위치한 조산은 명당 아래쪽에 물을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기본적 도상을 가지고 풍수지리는 좌향(坐向)과 형국(形局)이라는 하위개념을 발전시켰다. 좌향은 명당자리에 집을 지을 때,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지을 것인가의 문제였고, 형국은 각기 다른 땅의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형태를 정리한 것이었다. 풍수에 쓰이는 '나경(羅經)'은 좌향을 선택할 때 쓰는 일종의 나침반으로 『정감록』에서도 등장하는 '자좌오향(子坐午向)', '계좌정향(癸坐丁向)' 등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마치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두고 다투는 형상이라는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 등은 형국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룰 '회룡고조' 역시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형국 중 하나이다. 회룡고조는 용이 고개를 돌려 주산을 돌아보고 명당을 이룬 형국으로, 다음 <그림 2>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회룡고조>[11]

회룡고조 형국은 다른 형국과 달리 주산과 조종산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런 독특성으로 명당의 위쪽에 있을 조종산에 해당하는 산이 명당의 아래쪽에 있을 조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림 1>의 표준적인 형태의 풍수지리 도상을 보면 주산과 조산이 하나의 산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산으로서 주산은 명당의 뒤에, 조산은 내수와 외수너머 앞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룡고조의 형국은 조종산과 주산에서 내려온 산맥의 흐름이 그 방향을 틀어 다시 조산이 되고 있다. 요컨대 다른 형국과 달리 회룡고조는 조종산이 곧 조산이 되는 모순적인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다.

용이라고 불리는 산맥의 흐름이 한 바퀴 회전한다는 점에서 회룡고조는 매우 좋은 형국으로 풀이되기도 했고, 흉한 형국으로 풀이되기도 했을 정도로 논쟁적인 형국이었다. 특정 조건이 맞으면 길한 형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세종실록』에는 태종의 무덤인 헌릉(獻陵)이 회룡고조의 명당이라는 언급이 등장한다.[12] 이때 이용(李庸)과 이양달(李陽達) 사이에 헌릉이 과연 회룡고조의 명당이 맞는지, 일명 '단맥(斷脈) 논쟁'[13]이 붙었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후대의 풍수가들은 헌릉 외에 세종의 무덤 영릉(英陵) 역시 회룡고조의 명당으로 해석하고 있다.[14]

조종산이 곧 조산이 된다는 특징으로 회룡고조가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주산과 조산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다른 형국은 조산이나 안산이 주산보다 높으면 혈처가 그 기세에 눌린다고 하여 흉하다 여기는데, 조산이 곧 조종산이었던 회룡고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회룡고조에서는 안산과 조산이 같은 기맥

---

11) 『회룡입수』, 『한국 조경풍수 연구소』 2011.12.22. http://klfi.co.kr/?c=6/17&uid=264(2021.10.14.)

12) 『世宗實祿』 3년 1월 5일; 12년 7월 7일.

13) 헌릉의 땅의 맥이 끊겨있다는 논쟁으로서, 세종이 자신이 헌릉에 같이 묻히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때, 당시 풍수가 최양선이 '이 자리는 후손이 끊어지고 장남을 잃는 자리다(絶嗣孫長子)'라고 반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世宗實祿』 25년 2월 2일. 이러한 논쟁은 공교롭게도 계유정란이 일어나자 이후 더욱 주목받았다.

14) 양홍재, 「세종대왕릉 영릉(英陵)」, 『제주신문』 2008.10.02.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7(2021.10.14.)

으로 이어지기에 조산이 주산보다 크거나 대등하다고 여겨질 때 명당으로 인식되었다.[15] 이런 관점에서 조선전기와 정감록 시대에 계룡산의 풍수를 각각 어떻게 이해했는지 주산과 조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회룡고조로 본 계룡산의 이해: 정감록의 인식 전환

도서명으로서의 『정감록』은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단일한 내용이나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 오던 내용들을 필사자에 따라 제각각 기술해 왔기 때문이다. 골격은 대동소이하나 기록자의 주관이 가미되어 오다가 오늘날과 같은 세간의 『정감록』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진 것이다.[16] 이에 따라 『정감록』은 「감결(鑑訣)」, 「징비록(懲毖錄)」, 「비지론(秘知論)」, 「운기귀책(運奇龜策)」, 「정이문답(鄭李問答)」,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토정비결(土亭秘訣)」, 「무학비결(無學秘訣)」,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등등의 문헌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후 본론에서 직접 다룰 원문은 1923년 간행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본 『정감록(鄭鑑錄)』과 김용주 본 『정감록(鄭鑑錄)』 등을 비롯한 비결문헌을 집성한 안춘근(安春根)의 『정감록집성(鄭鑑錄集成)』에서 인용하였고, 그 해석은 일부 번역상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양태진의 『정감록: 민족종교의 모태』 등을 참조하였다.

『정감록』에 속해있는 다수의 문헌들에서는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李亡鄭興)'는 이야기와 함께 한양을 도읍으로 한 이씨조선이 쇠하고,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계룡산 아래에 도읍을 두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도읍지 계룡산의 회룡고조에 대한 인식이 그 전과 달리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산과 조산의 역학관계를

15) 「회룡고조」, 『위키 실록사전』 2017.12.10.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D%9A%8C%EB%A3%A1%EA%B3%A0%EC%A1%B0(%E5%9B%9E%E9%BE%8D%E9%A1%A7%E7%A5%96)(2021.10.14.)

16) 양태진, 『정감록: 민족종교의 모태』 (서울: 예나루, 2013), 14.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조너선 스미스는 그의 저서 『자리잡기』[17]에서 본래 속(俗)의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과정을 정치적, 종교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정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유토피아적, 성스러운 장소의 변화가 세계관의 정치적, 권력적 속성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권력 체제의 중심을 이룬 한양은 계룡산이라는 새로운 이상향과 경쟁관계에 놓이며, 여기에 정치권력의 담론과 민중들의 종교적 사유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스러운 공간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쟁취된다는 점을 정감록의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룡산의 회룡고조'라는 풍수적 개념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1. 조선전기의 계룡산 이해

협의의 『정감록』으로 불리는 「감결」을 비롯하여 『정감록』의 여러 문헌에서는 계룡산을 시공간적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룡산이 곤륜산(崑崙山)[18]의 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산맥의 계보를 설명한다.

> 정이 말하기를, 곤륜산 맥이 뻗어내려 백두산에 이르고 그 원기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평양은 이미 1천년의 운이 지나 송악으로 옮아갔다. 5백년간의 도읍지인 송악은 요승과 궁녀들의 작태로 지기가 쇠퇴해지고 천운이 막혀 그 운이 한양으로 옮겨간 것이다. …(중략)… 심이 가로되, 내맥의 운이 금강산으로 와서 태백, 소백산이 되고 산천기운이 뭉쳐 계룡산으로 들어가 정씨 8백년의 도읍터가 되느니라.[19]

17) 조너선 스미스, 『자리잡기』,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18) 중국 전설상의 산으로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19) 「鑑訣」, "鄭曰 自崑崙來脈至白頭山 元氣至于平壤 平壤已過千年之運 移于松岳五百年之地 妖僧宮姬作亂 地氣衰敗 天運否塞 運移于漢陽 而其略曰 干戈未定忠臣死 乾坤長夜明 南渡蛟龍人何去 須從白牛走從城 沁曰 來脈運移金剛 至于太白 (在安東) 小白 (在) 山川鍾氣入於鷄龍山 鄭氏八百年之地.";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567.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전설상의 곤륜산에서 흘러나온 산세로부터 고려의 송악, 조선의 한양을 거쳐 계룡산이 새로운 도읍의 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풍수지리에서 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산인데, 풍수에서 끊긴 산은 흉하다고 한다. 계룡산이 곤륜산에서 시작되어 길게 이어져 왔다는 서술은 그 지기가 매우 강력함을 암시한다.

계룡산은 일찍이 통일신라시대부터 5악(五岳) 중 서악(西岳)으로 꼽힐 만큼 명산으로 알려져 있었고,[20] 풍수지리적으로 산세가 신묘하다 하여 도읍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21] 이런 계룡산의 풍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회룡고조에 있다.[22]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풍수가들은 계룡산 산세의 흐름을 곤륜산, 백두산,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에서 분기한 지리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덕유산, 마이산, 대둔산의 방향으로 산맥이 거꾸로 북상하다가 다시 계룡산에서 남하하는 형세로 파악하고, 이렇게 원시반복되는 산세의 모습을 지녔기에 산태극(山太極)을 이룬다고 보았다. 즉, 태백산에서 산맥이 남하하다가 지리산에서 북상하면서 한번 회전하였다가 계룡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회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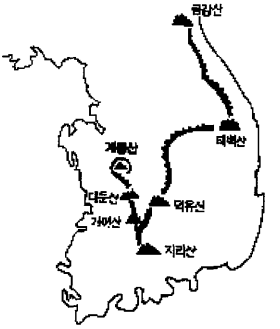
이 산태극의 경우 금강산과 태백산에서 시작된 산의 흐름이 남하하다가 지리산에서 북상하고 계룡산에 이르러 '고개를 돌리며' 흐름을 모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원을 그리듯 모이다가 계룡산에 이르러 회룡고조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마치 한반도 남쪽 산의 모든 흐름이 계룡산 일대에서 고개 돌려 끝난다고 보았다. 한반도 남쪽의 모든 기운이 계룡산에 모인다는 해석 하에서 계룡산은 천하의 명당으로 인식된 것이다.

---

20) 『三國遺些』 券2 경덕왕 忠談師 表訓大德條.

21) 양태진, 『정감록: 민족종교의 모태』, 28-29.

22) 한기범 외, 『충남학의 이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170.



<그림 3: 계룡산의 산태극>[23]

이런 풍수적 길지(吉地)의 요인으로 인하여 조선에서는 계룡산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먼저 조선의 수도를 정할 때부터 한양과 함께 계룡산은 도읍지의 후보로 선택되었다.[24]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계룡산이 탈락하고 한양이 선택되었는데, 하륜(河崙)이 다음과 같이 반대 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첫째, 계룡의 위치가 지나치게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 송(宋)나라의 풍수가 호순신(胡舜臣)이 흉하다고 말한 건(乾)방에서 산이 오고 물은 손(巽)방으로 흘러가는 '수파장생 쇠패립지(水破長生 衰敗立至)'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25]

조선의 도읍지로 한양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 최창조의 연구에서는 풍수지리에서도 논쟁적인 득수법과 좌향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호순신의 풍수설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해석하고 있다. 요컨대 천황봉을 정점으로 치개봉, 민목재 쪽의 청룡산세와 멘재, 향적산 쪽의 백호산세가 남쪽의 산세에 비해 너무 강하여 명당을 휩쓸어 봉보 협곡 쪽으로 몰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23) 정종수, 『계룡산』 (서울: 대원사, 1996), 21.

24)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지를 결정할 때 풍수지리설을 따르지 않았다는 설을 비롯해 한양 천도에 관한 설들은 다양하지만 최창조는 실록의 기록만 보더라도 한양 천도는 명백히 풍수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양 천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1』 (서울: 민음사, 1997), 124-172 참조.

25) 『太祖實祿』, 2년 12월 임오.

이러한 해석을 앞서 살펴본 회룡고조의 주산과 조(종)산(이하 '조산')[27]의 개념으로 치환해 보면 천황봉을 비롯하여 주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들이 남쪽의 산세에 비해 너무 강하여 명당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룡산의 회룡고조는 주산에 해당하는 산들이 너무 강하고 상대적으로 조산에 해당하는 산들이 약하여 길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즉, 계룡산이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길지인 것은 맞으나, 도읍지로 선택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계룡산은 도읍지 후보에서 탈락하였지만, 이후 계룡산이 그 존재감을 잃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인조 9년 2월에 옥천인(沃川人) 조흥빈(趙興賓)이 고변하여 권대진 등 16인을 잡아 국문한 역모사건에서도 계룡산 신도안 지역이 도읍지로 거론된 사건[28]이 대표적으로, 정감록 전통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계룡산 일대가 도읍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언설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계룡산의 풍수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론적 토대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도읍지로 역할 하지도 못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계룡산의 풍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서 『정감록』 전통 이전까지 유지된 기존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 산 모양은 반드시 수려한 바위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도 또한 맑

26)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1』, 144.

27) 전술하였다시피 회룡고조 형국에서는 조종산(祖宗山)과 조산(朝山)이 같은 산으로 설정된다. 또한 『정감록』에서는 조종산을 조산(祖山)이라는 약어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독해에 유의가 필요하다.

28) 『仁祖實祿』 권24, 9년 2월 정미; 학자들은 정감록 전통의 출현 시기를 18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지만, 권대진 모반 사건과 더불어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통해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백승종, 「18세기 전반 서북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 『역사학보』 164 (1999): 99-124 참조.

다. 또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큰 힘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 4곳이 있으니 개성(開城)의 오관산(五冠山), 진잠(鎭岑)의 계룡산(鷄龍山), 한양(漢陽)의 삼각산(三角山), 문화(文化)의 구월산(九月山)이다. …(중략)… 계룡산은 웅장(雄壯)한 것이 오관산보다 못하고, 수려함은 삼각산보다 못하다. 전면에 또 수량(水量)이 부족하고, 다만 금강 한 줄기가 산을 둘러 돌았을 뿐이다. 무릇 회룡고조(回龍顧祖)라는 산세는 본디 힘이 적다. 그러므로 중국 금릉(金陵)을 보더라도 매양 한편의 패자(覇者) 노릇하는 고장으로 되었을 뿐이다.[29]

위와 같이 이중환은 계룡산의 풍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회룡고조의 산세는 본디 힘이 적다며 오관산이나 삼각산보다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성의 오관산과 한양의 삼각산은 웅장하고 수려하나 계룡산은 회룡고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과 산이 뒤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존재하기에 본디 그 지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금릉의 사례와 비유하며, 도읍지로 선택하기에 부적절함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조선 전기에서 정감록 전통 이전까지, 계룡산의 회룡고조는 주산에 비해 조산이 약하다는 이유로 흉하거나 도읍지로서는 적절치 않은 땅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정감록』의 계룡산 인식의 전환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감록 시대에 이르러 대전환을 맞이한다. 계룡산의 풍수는 길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새로운 이상향으로까지 설정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감록』에서 언급된 회룡고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민중들의 종교적 사유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정감록』의 주요 문헌으로 손꼽히는 「정감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회룡고조를 설명한다.

---

29) 『擇里志』, "凡山形必秀石作峯 山方秀而水亦淸 又必結作於江海交會之處 斯爲大力量 如此者國中有四 一則開城五冠 一則漢陽三角 一則鎭岑鷄龍 一則文化九月也 <中略> 鷄龍則雄不及五冠 秀不及三角 前面又少朝水 只錦江一帶周廻龍身而已 凡回龍顧祖之地 本少力量 故雖以金陵觀之 每爲偏覇之邦."

>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르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른다. 대개 향린산은 본디 그 맥이 백두산에 기원하여 원체 강대하다. 산의 맥을 우러러 보니 천리 밖까지 이르러 머리를 돌고, 조산은 반룡산과 대별산에서 더욱 솟아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있으니, 삼각산과 한강이 지극히 흉하게 된다는 것이다.30)

향린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31) 그 맥이 백두산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점, 전 서술에 걸쳐 이상향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천리에 이르러 '머리를 돌고' 있다는 회룡고조 풍수를 논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었을 때 계룡산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위의 서술은 더욱 명확해진다. 계룡산의 기존의 조산은 약했지만, 이제 반룡산과 대별산에서 솟아올랐기에 조산이 강한 풍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산이 약하다는 이유로 명당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던 계룡산을 재평가하는 서술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은나라가 하나라의 예를 따르고, 주나라가 은나라의 예를 따른다는 서술은 조상의 역할을 하는 전(前) 국가의 힘이 후(後) 국가에 전달되는 것처럼, 강한 조산을 바라보면 명당이 더 길지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룡 일대가 한양의 힘을 이어받게 되고, 이에 따라 한양은 흉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정감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회룡고조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한다.

> 용이 낮고 호랑이가 높으면 곧 남자 자손들은 번성하고 비록 조산이 보이지 않더라도 청룡이 높고 크면 곧 자손은 번성하여 부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러한가? 이와 같은 류의 설들은 헛되이 속이고 방자한 것이며, 사태를 뒤집고 어지럽히는 것들이다."32)

위 구절은 호랑이에 해당하는 우백호와 용에 해당하는 좌청룡이 높으면 조산

30) 「鄭堪問答」, "殷因夏禮 周因殷禮 盖香麟山 本脈源於白頭山 元體强大 仰視螺鬟 以至千里外 到此回頭 祖山而自半龍山大別山 尤屈起 然少有未便者 三角山與漢水極爲凶也.";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647.

31) 향린산에 대해서는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참조.

32) 「鄭堪問答」, "龍低而虎高 則男子孫繁盛 雖不見祖山 青龍高大 則子孫繁盛 富貴智者多出云々 固是乎. 如是之類 虛張詭說 變易紛紜.";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649.

이 낮아도 길하다고 여기는 세간 사람들의 인식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풍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특히 조산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시켜주는 서술이다. 결국 주산과 조산의 높이가 맞아 서로 조응해야 길지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조산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된다.

> 무릇 산리로 볼 때 조산이 보이지 않으면 자손은 암약하여 선조를 알지 못하며, 조산의 봉우리가 가파르면 그 아래에 '명혈'을 이룬다. 조산을 돌아보니 가려지는 바가 없이 확연히 밝게 보이니 곧 조상이 아들에 의지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지하고 아버지는 조상에 의지하며 손실이 없다. 이에 아들 된 자는 장차 그 부모의 권세, 그 은혜가 두텁고 그 권세가 중하여 곧 이 세상에 서니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만약 조산을 보지 못한다면 곧 부모 자손이 오히려 담장에 바로 대고 서게 될 것이다.[33]

<그림 1>의 풍수지리 표준형태에서 명당은 주산 아래에 만들어지지, 조산 아래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회룡고조 형국에서는 조산 아래에 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회룡고조에서는 조산(祖山)이 곧 조산(朝山)으로서 주산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감문답」에서는 조산이 강해진 회룡고조의 형국에서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듯 길한 땅이 된다고 보고 있다.

조산을 조상에, 주산을 아들에 대응시키는 유비적 관계를 전제한다면, 부모 자손이 담장을 두고 서 있는 꼴은 풍수의 '안산(案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을 보면 주산의 명당과 조산(朝山) 사이에는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안산의 '案'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주산과 조산 사이에 놓인 책상의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안산은 주산과 조산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런데 조산이 안산보다 낮으면 주산은 조산을 가린 안산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들은 조상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마치 담벼락을 마주한다고 비유하는 것

---

33) 「鄭堪問答」, "凡山理 不見祖山 子孫闇弱 不知先也 凡山理 不見祖山 子孫闇弱 不知先也. 回顧祖山 視無所蔽 廓然明見 則祖依子々依父父依祖而不失焉. 爲子者 將其父母之勢 其恩厚 其勢重 則立于斯世 誰敢侮之 若不見祖山 則父母子孫 猶正墻面而立也.";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649.

이다. 즉, 「정이문답」의 조산에 관한 글들은 주산과 조산 사이의 역학관계를 통해 명당과 흉당이 결정되는 회룡고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계룡산의 풍수의 핵심이 회룡고조에 있고, 이것이 조선전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정감록』에 이르러 길지로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주산과 조산 사이의 역학관계인데, 기존의 풍수 논리에서는 조산이 주산에 비해 낮아 흉당이라고 여겼지만 『정감록』에서는 조산이 힘을 얻었으니 명당이 되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정감록』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전환된 인식이 계룡산의 풍수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 했다고 보여진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계룡으로 천도를 계획했다는 계룡 이도설(移都說)[34], 또 명성황후 때는 계룡산에 정씨 왕조가 들어서는 기운을 막기 위해 계룡산에 정씨를 누른다는 뜻의 '압정사(壓鄭寺)'를 세웠다는 언설[35]들은 민중들의 믿음을 넘어 계룡산의 풍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전파되었음을 시사한다.

Ⅳ. 궁궁(弓弓)의 재해석: 회룡고조로 본 이상향

『정감록』에서는 왕조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이 과도기적 시간 속에서 민중들에게 '십승지(十勝地)'와 같은 '피장처(避藏處)'로 숨어 들어갈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런 땅들은 '궁궁(弓弓)'이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장에서는 난리를 피할 수 있는 땅의 특징인 '궁궁'의 개념을 앞서 살펴본 회룡고조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궁궁의 모호성

34)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계룡의 어제와 오늘』 (충청남도, 1994), 41-42.
35)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정현우 옮김 (서울: 명문당, 2010), 721.

『정감록』에서는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지의 특성으로 궁궁을 이야기한다. 이 궁궁과 그 변형인 궁을(弓乙)은 19-20세기의 가사문학 등 문화에서도 폭넓게 등장하며 조선 후기 문화사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36] 특히 한국 자생종교의 효시로 불리는 동학에서도 궁궁은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다. 예컨대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며,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국은 태극이며, 또 궁궁이다"[37], "가슴에 불사약을 지니고 있으니 그 형상은 궁을이다"[38]와 같은 서술이 그것이다.

동학이 최제우가 궁극적 실재인 '하늘님'으로부터 영부를 받아 새롭게 일으킨 종교운동이라는 점에서 영부는 동학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였다.[39] 그리고 「포덕문」에서 최제우는 이 영부를 궁궁으로 설명함으로써 궁궁은 동학 이후 탄생한 수많은 자생종교와 한반도의 종교문화에 중요한 참언으로 부상하였다.[40] 한승훈이 언급한 것처럼 '궁궁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참언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개념'이 된 것이다.[41]

많은 학자들이 이 궁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학설과 가설들을 제시했지만, 아직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정립된 것이 없다. 물론 예언서와 비결서들이 늘 그러하듯, 하나로 해석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말들이 개입되어 있어, 궁궁에 대한 해석은 미제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회룡고조 개념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던져볼 수 있다.

---

36)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152-153.

37) 『東經大全』, 「布德門」,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38) 『東經大全』, 「修德文」, "胸藏不死之藥 弓乙其形."

39) 이에 대해선, 성해영, 「수운 종교체험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체험-해석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18 (2009): 271-306;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박병훈, 「동학의 영부관 연구: 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종교와문화』 31 (2016): 51-79 참조.

40) 궁궁을 언급한 가사의 상당수는 동학을 계보로 한 신종교였지만, 드물게 개신교계 전도가사도 존재한다. 즉, 궁궁은 한반도의 종교와 문화 저변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152-153.

41)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152.

『정감록』에서 궁궁은 여러 장에 걸쳐 등장했다. 먼저 「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궁궁을 설명한다. “정이 말하기를 대체로 피신을 한다면, 산에서도 이롭지 않고, 물에서도 이롭지 않으며, 양궁(兩弓)이 최고로 좋다.”[42] 또한 「운기귀책」에도 다음과 같이 궁궁을 설명한다. “계룡의 돌이 희어지고 평사 30리에 백성들이 피병을 하는데 산과 강물에서 불리하며, 오로지 양궁(兩弓)만이 유리하다. …(중략)… 갑진년에는 궁궁을을(弓弓乙乙)에 있음에 유리하다.”[43] 한승훈은 이런 표현이 처음 확인된 사례로 이지서 사건(1784) 자료에서 인용되는 「도선비결」을 꼽고 있다. 내용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궁궁이 이롭다(非山非水, 利於弓弓)’로, 자신의 연구에서 궁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44]

① ‘궁’을 소리로 해석하여, 그 소리가 나는 곳에 장사를 지내라는 해석[45]
② 주모자 이지서가 풀이한 ‘궁궁은 광활함을 의미한다’는 해석[46]
③ 궁궁은 옛 글자로 ‘머물 류(留)’자이며, 이에 ‘산골짜기로 피하지 말고, 섬 안에 거하지도 말라는 말’이라는 해석[47]
④ 궁궁은 이궁(二弓)으로, 파자하면 불(弗)로 해석되어 피난하지 말라는 해석[48]
⑤ 궁궁이나 궁을은 장소가 아니며 병을 물리치는 동학의 영부(靈符) 모양이라는 해석[49]

---

42) 「鑑訣」, “鄭曰 不利於山 不利於水 最好兩弓.”;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723.

43) 「運奇龜策」, “鷄龍石白平沙三十里人民避兵之方不利山不利水利於兩弓 <中略> 靑龍利在弓弓乙乙.”;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499.

44) 아래의 해석은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152-155를 정리한 것이다.

45) 『罪人之曙推案』, (1748년 5월 23일) 推考次罪人遂萬年七十一, “弓弓似指弓操音 埋於操音處之謂也.” (『推鞫』 [21:42]).

46) 『罪人之曙推案』, (1748년 5월 23일) 推考次罪人命垕年三十, “矣身問 ‘弓弓 何意?’ 答曰 ‘弓弓 廣濶之意也.’” (『推鞫』 [21:44]).

47) 『罪人之曙推案』, (1748년 5월 23일) 罪人之曙與敏樞面質, “不避於山峽 勿居於島中之謂也. 弓弓 榮孫以爲古字留字.” (『推鞫』 [21:63]).

48) 『乙亥 捕盜廳推案』, (1755년 3월 13일) 罪人丁守憲年五十二, “‘秘記云 不利於山 不利於地 莫如弓弓處. 弓弓處 君能知之乎?’ 答曰, ‘雖未的知 弓弓乃弗字. 入山入水者 皆爲禍及 而安定者 弗參其禍也.’” (『推鞫』 [21:434]).

49) 『五洲衍文長箋散稿』 券35, 「樂土可作菟裘辨證說」.

⑥ 궁궁은 변란 주동자인 이필제의 이름이며, 을을은 '을유년'이라는 해석[50]

이외에도 궁궁을 闊闊로 해석하여 '넓은 곳'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궁을 활의 허리(弓腰)로 해석하여, 구부러진 곳에 숨으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 산도 물도 아닌 곳인 '섬'이라는 견해, 보은현(報恩縣)의 마을명이 궁궁이라는 견해까지 매우 다양했다.[51] 궁궁은 당시 종교계를 넘어 사회문화계까지 널리 사용된 참언이었지만, 그 의미는 하나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①과 ⑥의 견해처럼 궁궁을 소리나 파자(파자)로 해석하는 견해는 지리적 이상향으로 궁궁을 설정한 정감록의 서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52], ③과 ④의 견해처럼 궁궁을 피난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해석은 "십승지에는 흉년이 들지 않고 전쟁의 화도 미치지 않으며 삼남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호형호제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간다"[53]와 같이 재난에 대한 피난을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정감록』의 언설들을 설명하는 데도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궁궁이 이후 동학에 의해 널리 언표됨에 따라 동학이라는 종교적 맥락 속에서의 해석은 많이 이루어졌지만,[54] 「도선비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는 궁궁의 의미와 『정감록』에서 지정학적 이상향으로 특징되는 궁궁을 설명하는 연구는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궁궁의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가 회룡고조의 개념을 통해 『정감록』의 지리적 이상향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궁궁 역시 회룡고조의 개념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

50) 『左捕廳謄錄』 15, 己巳(1869년) 4월 18일, 罪人朴會震年三十七, "又曰 '弼濟之弼字 爲弓弓', 又曰 '弼濟乙酉生 故曰乙乙也' 彷佛壬辰松松之說." (『捕廳』 [下:533]).

51) 박상현, 「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1), 69-79.

52) 물론 궁궁이 지리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궁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필제 사건(1869), 장혁진 사건(1877)에서는 혁세와 군사적 반란의 기호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선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154 참조.

53) 「運奇龜策」, "此十勝凶年不入 兵火不侵 三南逃竄如兄如弟 一食牛衣必賴相資.";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506.

54) 이에 대해선 이찬구, 「동학의 영부관 고찰: 태극과 궁궁의 천도적 이해」, 『동학학보』 4 (2002): 279-322;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121-144 참조.

된다.

2. 회룡고조와 궁궁

풍수에서 '궁'은 '궁수형(弓水形)'이라는 형국으로 빈번하게 쓰인다.[55] 궁수형이란 물이 마치 '활 궁(弓)'의 모양처럼 굽이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파벳 S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풍수에서는 궁수형을 늘 이상적인 물의 형태로 보았다.[56] 굽이쳐 흐르는 물은 역동성을 띠며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림 1>의 명당 자리처럼 S자의 안쪽에서 물의 흐름을 받는 공간을 길하다 여겼고, 이와 반대로 일자로 흐르는 물은 '죽은 용(死龍)'이라고 일컬으며 흉한 형태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궁궁의 궁은 궁수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궁이 최초로 언급되었다는 「도선비결」에는 궁궁을 설명함에 '非山非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산도 물도 아니라는 것인데, 만약 이를 '산만으로도 안 되고 물만으로도 안 된다'고 해석하면, "산만의 하나의 궁과 물만의 하나의 궁만으로는 안 되고, 산과 물의 두 '궁'이 만나는 곳이 궁궁이다"는 해석도 도출할 수 있다. 즉, 물이 만들어내는 궁수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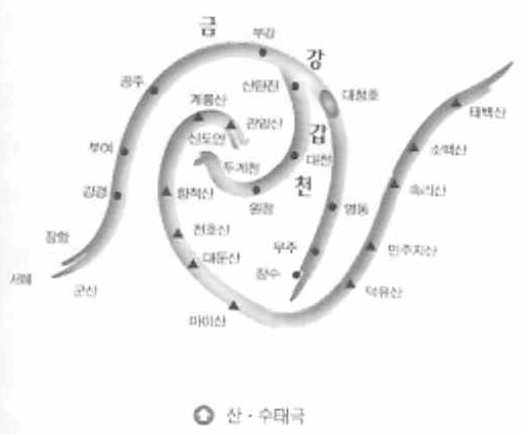
계룡산의 풍수에서는 앞서 언급한 산태극 외에도 수태극(水太極)이 존재한다. 이 수태극이 궁수형의 모양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계룡산 신도안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북상하여 금강과 합류하고 이 금강이 다시 계룡산을 돌아 서남방으로 흐르는 형세가 마치 물이 S자를 그리며 흐른다고 본 것이다.

산이 만들어내는 '弓' 모양은 앞서 살펴본 회룡고조의 모습과 닮아있다. 표준 형태의 풍수에서 산은 '弓'의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회룡고조는 머리를 돌려 회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弓' 모양이 만들어진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표준의 산 형태와 달리 회룡고조는 한 바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지를 만

5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일빛, 1999), 95 참조.

56) 이런 궁수형의 대표적 동네가 서울의 용산구, 강남구, 여의도이며, 삼보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송광사 역시 궁수형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든다. 종합하면, 궁궁은 산의 '弓'인 회룡고조와 물의 '弓'인 궁수형이 만나는 명당자리를 일컫는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아래 <그림 4>를 보면 계룡산 일대가 그런 모습과 유비된다.



<그림 4: 계룡산의 산태극과 수태극>[57]

풍수에서는 산태극과 수태극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태극의 모양과 유사하다고 여겨, 계룡산의 풍수를 우주의 중심이 저절로 구현되는 곳으로 여겼다.[58] 요컨대 산과 물이 각각 태극 문양처럼 S자를 이루며 계룡산 일대에서 모인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계룡산의 풍수는 산태극과 수태극의 S자가 맞물려 있는 구조라 하여 길하다고 여겨졌는데, 그 형태를 궁궁으로 볼 수 있다. 즉 '궁궁'은 계룡산이 가지고 있는 피장처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회룡고조와 궁수형이 양궁을 각각 담당하면서 태극의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이 추론은 동학에서 말하는 궁궁과도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학에서는 궁궁을 설명함에 그 형국이 태극이라는 단서를 붙

57) 계룡시, 「계룡의 어제와 오늘」 (계룡출장소, 1999), 55.

58) 이길구 외, 「계룡산 유기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6), 1; 김기모, 「계룡산 도읍지설과 천도논의의 역사적 고찰」, 10.

였기 때문이다. 태극은 동학의 문양에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상징이며, 『동경대전』에서는 태극을 통해 궁궁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용담유사』에서는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중략)… 가련한 세상사람 이재궁궁 찾는 말을 …(후략)…"을 언급하며 궁궁을 지리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다.[59] 본 연구에서 추론한 궁궁이 회룡고조의 산태극과 궁수형의 수태극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궁궁이 태극의 형상을 한 지리적 상징이라는 동학의 해석과 맞닿아 있다.

산태극과 수태극의 중첩으로 궁궁을 해석하면, 『정감록』에서 계룡산이 자연의 흐름이 모이는 공간이자 우주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엘리아데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변증법을 통하여 속의 공간과 구별되는 성의 공간을 이야기했다.[60] 특히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되는 공간의 특징으로 "(1)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스러운 산'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 (2) 모든 사원이나 궁전, 더 나아가 모든 성스러운 마을이나 왕궁은 '성스러운 산'과 동일시되며, 따라서 '중심'이 된다. (3) 반대로 사원이나 성도(聖都)는 세계축(Axis Mundi)이 통과하는 장소로서 하늘, 땅, 지하가 교차하는 점으로 생각된다"[61] 등을 거론하였다.

궁궁이 바깥과 구별되어, 화를 면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의 특징으로 설정되어 있고, 동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계룡산의 산태극과 수태극이 궁궁의 모양을 통해 우주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계룡산의 회룡고조가 전설상의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남부의 모든 산들의 끝에 위치하여 그 기운이 종착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엘리아데의 논의와 같은 결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계룡산은 회룡고조와 궁수형의 두 '弓'으로 얽혀져 세계의 중심이자 자연의 힘이 모이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곳에 성스러운 마을과 도읍지가 들어설 장소이자 새로운 이상

59) 다만 동학의 궁궁은 처음에는 장소적 공간으로 이해되다가 이후 지리적 의미를 탈각되며 그 기의가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선 박병훈,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문화』 41 (2021): 1-33 참조.

60) 이에 대해선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8) 참고.

61)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6), 480-481.

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회룡고조를 통해 궁궁을 설명하는 방식은 지리적 상징과 종교적 사유와의 관계에 천착했던 기존의 종교학적 논의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술한 대로 궁궁의 정확한 의미는 최초로 기술한 사람 외에는 모를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궁궁을 해석하는 단서인 '비산비수'를 회룡고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을 가지고 당대 사람들이 성스러운 가치가 부여된 이상향을 설정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회룡고조는 『정감록』에서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계룡산과 그 특징인 궁궁을 해석하는 데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도참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석하기에 다소 모호한 『정감록』의 전승을 회룡고조라는 풍수지리적 개념으로 독해해 보고자 했다. 먼저 『정감록』에서 새로운 도읍지이자 지리적인 이상적 모델로 등장하는 '계룡산'에 회룡고조를 대입하여 검토하고, 『정감록』 이전과 이후에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하였다. 『정감록』 이전에는 계룡산의 회룡고조가 주산에 비하여 조산의 산세가 약하다고 판별하고 그것을 흉하다고 여겼으나 『정감록』에서는 계룡산의 조산이 강하다는 방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전환된 인식은 계룡산이 한양을 대체할 수 있는 길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결국 계룡산의 회룡고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의 여부가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는 『정감록』의 예언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둘째로 도참사상, 비결사상, 동학 등 한국의 신종교에 강한 영향을 끼쳤던 '궁궁'이라는 개념을 회룡고조의 개념으로 탐색해 보았다. 궁궁을 해석하는 단서 중의 하나인 '비산비수'를 회룡고조로 표현되는 산의 弓과 궁수형으로 표현되는 물의 弓의 결합형으로 보자는 가설을 논의해 보았다. 계룡산의 풍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회룡고조와 궁수형은 각각 맞물려 태극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양궁 혹은 궁궁의 가설이 동학의 그것과도 연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계룡산과 궁궁이라는 지정학적 요소들이 종교적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지리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방식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문화화 되기 때문이다. 풍수와 같은 역술적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나, 정감록 전통에서 보여주는 당대 민중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창구로서는 학술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정감록』을 비롯한 도참서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지만 회룡고조라는 개념의 렌즈를 통해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론적 의의는 있다고 본다. 차후 정감록 문헌과 신앙 전통을 이해하는 다채로운 분석들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거기에 일조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정감록, 회룡고조, 풍수지리, 계룡산, 궁궁, 한국 종교

투 고 일: 2021. 12. 07.
심사종료일: 2021. 12. 21.
게재확정일: 2021. 12. 28.

참고문헌

『鄭鑑錄集成』. 안춘근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高麗史世家』

『東經大全』

『三國遺事』

『世宗實祿』

『五洲衍文長箋散稿』

『乙亥 捕盜廳推案』

『仁祖實祿』

『左捕廳謄錄』

『罪人之曙推案』

『太祖實祿』

『擇里志』

『청오경·금낭경』. 김관석 역해. 서울: 산업도서출판공사, 1994.

김기모. 「계룡산 도읍지설과 천도논의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2003.

김신회.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계룡시. 「계룡의 어제와 오늘」. 계룡출장소, 1999.

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121-144.

_____. 「동학의 영부관 연구: 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종교와문화』 31 (2016): 51-79.

_____.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문화

』 41 (2021): 1-33.
박상현.「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1.
박시익.「풍수지리 이론의 과학적인 해석과 응용방법」.『동아시아문화와예술』 2 (2005).
_____.『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일빛, 1999.
반 델 레에우, 게라르두스(Gerard van der Leeuw).『종교현상학 입문』. 손봉호·길희성 옮김. 칠곡군: 분도출판사, 2007.
백승종.「18세기 전반 서북 지방에서 출현한『정감록』」.『역사학보』 164 (1999): 99-124.
성해영.「수운 종교체험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체험-해석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동학학보』 18 (2009): 271-306.
스미스, 조너선(Jonathan Z. Smith).『자리잡기』. 방원일 옮김. 서울: 이학사, 2009.
양은용.「풍수지리설과 정감록」.『종교문화연구』 19 (2012): 311-324.
양태진.『정감록: 민족종교의 모태』. 서울: 예나루, 2013.
엘리아데, 미르치아(Mircea Eliade).『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8.
_____.『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1996.
윤병철.「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정신문화연구』 28(1) (2005): 95-125.
이길구 외.「계룡산 유기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6.
이이화.『민란의 시대: 조선의 마지막 100년』. 서울: 한겨레출판, 2017.
이찬구.「동학의 영부관 고찰: 태극과 궁궁의 천도적 이해」.『동학학보』 4 (2002): 279-322.
정종수.『계룡산』. 서울: 대원사, 1996.
정진혁.「조선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7.
村山智順.『조선의 풍수』. 정현우 역해. 서울: 명문당, 2010.
_____.『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해. 서울: 민음사, 1990.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계룡의 어제와 오늘』. 충청남도, 1994.

최종성.『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_____.「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역사민속학』61 (2021).

최창조.『한국의 자생풍수 1』. 서울: 민음사, 1997.

_____.『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한기범 외.『충남학의 이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한승훈.「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호순신.『호순신의 지리신법』. 김두규 역해. 서울: 장락, 2001.

양홍재.「세종대왕릉 영릉(英陵)」.『제주신문』2008.10.02.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7

「회룡고조」.『위키 실록사전』2017.12.10.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D%9A%8C%EB%A3%A1%EA%B3%A0%EC%A1%B0(%E5%9B%9E%E9%BE%8D%E9%A1%A7%E7%A5%96)

「회룡입수」.『한국 조경풍수 연구소』2011.12.22. http://klfi.co.kr/?c=6/17&uid=264.

Abstract

Addressing *Jeong Gam Nok* on the Notion of *Hoeryonggojo in Feng Shui*

Noh, Hyunsoo (Seoul National Univ.)

Although land itself is a nature, it demands an eclectic combination with the understanding of space to become a culture. This study employs Hoeryonggojo (回龍顧祖), a concept of feng shui (風水), to analyze the Jeong Gam Nok (鄭鑑錄), which was a prophetic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Hoeryonggojo is utilized to investigate how perceptions of Mt. Gyeryong, which emerged as a new capital and ideal space in Jeong Gam Nok, altered before and after Jeong Gam Nok. This new perspective has led to the opinion that Mt. Gyeryong can be considered a sacred place to replace Hanyang (漢陽). Second, in the Joseon Dynasty, the notion of Hoeryonggojo was utilized to interpret the concept of Gunggung (弓弓),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prophetic thoughts and new religions. Utilizing the idea of 'neither mountain nor water (非山非水)',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Gung is a description of Hoeryonggojo. In this light, Hoeryonggojo is an important notion to comprehend prophetic thoughts and new religions represented by the Jeong Gam Nok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Jeong Gam Nok, Hoeryonggojo, feng shui, Mt. Gyeryong, Gunggung, Korean religion